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강화

전북교육청, 경제·사회적 약자 위한 실질적 권익 구제 수단으로 정착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연금 수급자·한부모가족 등이 지원 대상

전북교육청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강화해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권익 구제 수단으로 정착시키겠다고 8일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선임 비용 부담으로 행정심판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자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운영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심판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갖춘 변호사 2명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하는 등 제도 운영의 핵심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서 당사자가 제도적 한계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인 제도를 핵심 권리 보장 장치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최근에는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국선대리인 선임을 희망하는 청구인은 신청 요건에 맞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원 여부를 검토해 선임을 결정·통지한다. 신청 방법은 전북교육청 법무행정 누리집 '행정심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경제적·사회적 약자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읽기에서 멈춘 아이들 교실 안에서 길 찾는다

난독·경계선지능 학생 지도 역량 강화 전북교육청, '동계 집중 연수' 13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난독·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교원의 이해와 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해 초등 교원 대상 직무연수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학력지원센터 협력 교사와 난독·경계선지능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초등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연수는 오는 13일까지 전주교육대학교에서 집합형 직무연수로 30시간 운영된다.



연수는 교실 안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행 기반 프로그램으로 읽기 곤란과 학습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 선별하고, 개별 특성에 맞게 지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교육과정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개념과 특성 이해 △조기 선별 및 관찰 실습 △개별 맞춤 지도안 수립 △난독증 학생의 읽기 평가와 중재 △문제력 지도 실재 등이다. 특히 강의와 실습을 병행해 연수 이후 바로 수업과 학생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김재훈 기자

국립군산대, 라오스국립대와 연합 해외봉사 프로젝트 추진

국립군산대학교 사회공헌센터는 오는 17일까지 라오스국립대학교 연합 있다(International Trend Trade Agreement) 해외봉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라오스국립대학교 연합 해외봉사 프로젝트는 지난 2023년 국립군산대와 라오스국립대학교 간 체결한 협약을 기반으로 추진됐으며, 양 대학은 지속적인 교육·봉사 교류와 글로벌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국립군산대 교직원 및 재학생 35명과 라오스국립대 한국어학과 학생 10명 등 총 4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및 학생 간 교류를 비롯해 전공연계형 교육봉사, 시설물 보수 활동,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라오스국립대 데사볼랏 쟌두안벳 총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양 대학 간 교류 확대 방안과 향후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을 위한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국립군산대 사회공헌센터 오연풍 센터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글로벌 시민의식 및 국제적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해외 대학과 SDGs를 연계한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우석대학교가 호남권 대학 간 협력과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8일 라한호텔 전주에서 '제2차 대학혁신지원사업 호남권역 공동 성과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우석대학교 제공)

호남권 대학 간 성과 공유·협력 강화 촉진

우석대, '대학혁신지원사업 호남권역 공동 성과포럼' 개최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호남권 대학 간 협력과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8일 라한호텔 전주에서 '제2차 대학혁신지원사업 호남권역 공동 성과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대학혁신지원사업총괄협의회가 주최하고, 우석대학교와 호남대학교가 공동 주관했으며, 호남권역 17개 대학의 총괄 책임자와 실무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각 대학이 창출한 성과와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학령인구 감소와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권역 내 대학 간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태희 한양대학교 교육혁신부처장은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공진화: 대학 기초융합교육혁신사업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호남권 대학들의 혁신성과 사례 발표와 총괄 책임자 및 실무자 분임 토의가 진행됐다. 사례발표에는 광주여자대학교와 동신대학교, 우석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원대학교 등 5개 대학이 참여해 전공 자율선택제 운영과 학생설계진공 활성화, 학생지원 프로그램, 특성화 인재 양성 프로젝트 등 각 대학의 대표적

혁신사례가 공유됐다. 특히 우석대학교는 '학생설계진공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사례를 발표하며, 학생 중심의 교육혁신을 위한 대학 운영 전략과 성과를 소개했다. 합운영 우석대학교 혁신사업단장은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호남권 대학들이 공동의 과제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권역 대학 간 지속적인 교류와 연계를 통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석대학교는 권역 내 대학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사업 발굴과 성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원주=염재복 기자

2026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사전 안내

9급 및 연구사 공개·경력경쟁, 4월 원서접수·6월 필기시험 특성화고 졸업자 대상 9급 경력경쟁, 8월 원서접수·10월 필기 전북교육청 '3월 안내되는 시행계획 공고 반드시 확인해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2026년도 지방공무원 9급 임용시험 일정 을 도교육청 누리집에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안내문에는 올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과 2026년부터 변경되는 시험 제도 주요사항 등이 담겼다. 9급과 연구사 공개·경력경쟁시험 원서접수는 4월, 필기시험은 6월 20일 실시된다. 이어 면접시험은 8월, 합격자 발표는 8월 중 진행된다.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9급 경력경쟁시험 원서접수는 오는 8월, 필기시험은 10월 31일 면접시험

은 11월, 합격자 발표는 12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엔 공지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수험생은 추후 안내되는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안홍일 총무과장은 "오는 3월 안내되는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는 9급 지방공무원 선발 분야 및 인원·세부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다"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이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